

하느님의 왕국



[6]

동산에서 뱀은 인간에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ㄱ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의 역량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주권자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예속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인간 자신의 자주, 이것이 온 천하를 피는 마귀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처음이 없으면 나중도 없고 나중이 없으면 처음 또한 있을 수 없듯이 주체니 주인이니 하는 그 주권은 그 주권에 종속된 상대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이는 주인이 될 수 없고 종이 없이 상전이 될 수 없으며 다스림을 받는 쪽이 없이는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서로 상대를 증언하시는 ㄴ 처음과 나중이시오 ㄷ. 궁창이라는 공간이 없던 때부터 세대를 벌리신 아버지와 아드님이십니다.

하늘이라고 일컬으신 ㄹ 궁창이 그 양위의 보좌이니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을 수 있을 뿐이오 ㄱ. 천지가 있기 전같이 천지가 폐한 후도 계시는 ㄴ 그 천지의 주재계서 ㄴ 계신 이상, 인본주의 사상은 미혹입니다.

인간이 본위이고 인간 자신이 주체라는 미혹에 빠져서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서로 높은 이가 되어 군림하려고 싸웁니다.

나 자신이 악한데 어떻게 선악을 판단합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똑같이 아래 ㄹ 흙으로써 지어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ㄴ. 하느님만 옳으시고 하느님만이 선하십니다 ㄴ.

ㄱ. 창3:5 ㄴ. 요5:32-34, 8:18 ㄷ. 사41:4 계1:8 ㄹ. 창1:8 ㄱ. 신33:26 시78:23 사48:1 겔2:26 마5:34 ㄴ. 시102:26 사. 마11:25 ㄹ. 창2:19 요8:23 ㄴ. 시14:1-3, 53:1-3 롬3:10 ㄴ. 마19:17 막10:18

하느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있지도 않은 거것이 ㄱ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냥 하느님의 진실만이 있고 하느님의 선하심만 ㄴ 있을 뿐이오. 그곳이 하느님의 낙원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신을 주시어 ㄷ 당신의 낙원에 거하는 산 혼이 되게 하셨고 선하신 하느님이시어서 당신이 지으신 각종 금수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ㄴ.

당신께서 지으신 금수를 구별하고 다스리는 ㄱ 왕이 되게 하신 것이오.

당신께서 창조하신 소유주로서의 영광을 아담에게 돌리신 하느님을 아담이 거역함으로써 상극(相戾)이 지어졌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ㄴ 상생(相生)의 낙원이 인간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 서로 싸우는 짐승의 나라가 된 것이오.

선지자 다니엘은 때가 되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 넷째 짐승인 네 야수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ㄴ 그중에서 넷째 짐승은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세력이라고 예언하였고 ㄹ 이때가 곧 성도(聖徒)가 나라를 얻는 때라고 ㄴ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그 짐승을 다시 보여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머리에 열 왕이라고 설명하신 ㄴ 열 뿔이 있고 표범과 곰과 사자와 넷째 짐승으로 된 몸을 가진 짐승을 계시하시어서 열강이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룬 거대한 공동체를 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을 미혹한 뱀을 들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뱀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야수의 세상입니다. 그 뱀의 권세를 받아 이 열 짝 가진 짐승이 말세에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위세를 갖습니다. 나라를 제패하기 위하여 패거리가 되었고 그 패거리의 대표자들이 또다시 서로 결탁하여 급기야 인류가 있는 이래로 이같이 두려운 세력이 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하였습니다.

ㄱ. 요8:44 ㄴ. 출33:19 ㄷ. 막10:18 ㄹ. 창2:7 ㅁ. 요20:22 ㅂ. 창2:19~20 ㅅ. 창1:28 ㅆ. 마20:26~27 ㅇ. 눅18:17, 22~27 ㅋ. 요13:14
 ㄴ. 단7:17 ㄷ. 단7:23 ㄹ. 단7:18 ㅁ. 계17:12 ㅂ. 단7:24 ㅅ. 계13:2 ㅆ. 창3:1 ㅇ. 계13:4 ㅋ. 단7:23

이천육백 년 전경, 고대 유브라테 강 유역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망위를 떨치던 때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대에서 갈데아(고대 유브라테 강 유역의 이름)로 잡혀간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제왕이 특이한 꿈을 꾸고는 그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데아의 술사들을 불러서 꿈과 해몽을 아울러 고할 것을 명하였으나, 모두 해몽은 하여도 꿈까지 고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기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나라의 박사들을 모두 수색하여 죽일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 역시 그곳에서 박수나 술사와 같은 박사들이었기 수색의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다니엘이 자원하여 꿈과 해몽을 고했고, 이에 왕은 다니엘을 제국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의 동료도 나라의 각 도에 파견하여서 백성을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학문은 말세가 가까워져 오면서 급자기 만연한 과학과는 달랐으므로, 성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번역된 박사는 동방에서 일컫는 도사와 같은 뜻입니다.

성서를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곳, 갈데아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였던 갈데아에서 이끌어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구약 성서에 쓰여있는 역사인데, 이 갈데아의 왕은 하느님과 반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잡아서 다시 갈데아로 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경이 어떤 곳이기에 수천 년 전에 하느님께서 그곳을 언약하셨을까.

ㄱ. 단1:6 ㄴ. 단2:1~12 ㄷ. 단2:13 ㄹ. 단2:48, 4:9, 5:11 ㅁ. 단2:12, 48 ㅂ. 마2:1 ㅅ. 창11:28, 15:7 ㅇ. 시48:1~2 ㅋ. 마5:35

동방 아시아 서쪽 끝이 그곳이어서 그곳에서 바다만 건너면 서양이고 그곳에서 남북이 세계의 남, 북방입니다. 인생의 유일하신 임금께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세상의 그 중앙에서 하느님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밝은 쪽을 향하면 좌측이 동쪽이고 우측이 서쪽이며 앞과 뒤가 남북입니다. 예로부터 사방을 네 생물로 나타내어서 그 생물이 보필하는 중앙을 밝은 명(明) 자를 붙여서 명당이라 하고 명당 중에서 큰 명당은 왕조가 나는 곳을 의미한다는 동방의 풍수지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곧 하느님께서 세우신 큰 임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 대는 그 명당에 묻혔고 그곳에 묻힌 아브라함은 혼이 되어서도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씨를 고대하다가 발음(發蔭)이 되어 상제께서 탄생하심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동방에서 천문을 보던 세 박사가 그 먼 동방에서 찾아와 상제를 배알하고 임금께 드리는 예를 올렸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시며 탄생하셨던 천자께서 창과 칼을 들고 서방에서 온 로마군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극동의 서전(書傳)에 성인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 인사를 펼쳤다고 하였듯이 동방에서의 천문이나 지리는 과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천기를 보고 장래를 예견하듯 일월성신을 보고 증조를 관찰하는 점성술과 같은 학문입니다.

바벨론 왕의 처지에서 보면 다니엘은 속에 거룩하신 하느님의 신(영)이 들려 있는 신성한 박수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박수장이라고 불러서 모든 박사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ㄱ.겔38:12, 48:8 ㄴ.마23:10 ㄷ.눅4:18 23:2 ㄹ.마5:5 계17:14 ㅁ.창25:10, 49:31, 50:5 ㅂ.창22:17~18, 26:4 ㅅ.요8:56 ㅇ.마2:11 ㅈ.요19:23 ㅊ.마16:1~3 ㅋ.창1:14 ㅋ.단4:9

사람이 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왕 자신이 꾸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왕 앞에서 서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겼고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 제국의 무당과 점쟁이와 술객들을 불렀던 ㄱ 제왕이 판단하기를 다니엘은 신이 들린 자 중에서 으뜸가는 박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서에는 바벨론 왕이 다니엘 속에 들려 있다고 말한 영을 「신들의 영」 이라고 ㄴ 번역하였으나 이 제왕의 말은 다른 성구와 달리 갈데아어로서 단수로 표기된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의 영입니다.

바벨론 왕이 말한 「신들의 영」 의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ㄷ 하느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ㅁ.

히브리어는 하느님이 복수명사이나 갈데아어는 단수 명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히브리말이 아닌 아람 방언으로 「엘리」 라고 ㄹ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입장이라면 성서에 쓰여있는 문자대로 히브리어를 쓰셔서 복수명사로 하느님을 부르셨을 터이나 하느님 중 하나이신 성자의 입장에서 다른 하나이신 천주를 부르셨기 때문에 단수명사를 쓰셔서 「나의 하나님」 을 부르셨습니다.

성자께서 그 「나의 하나님」 을 부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으니 기독교의 삼위일체 설은 성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지칭하는 어휘여서 성서 속의 그 어떤 단어보다 중대하기 그지없는 어휘건만, 본래 구약 사본에 표기된 술한 복수명사는 단수로 옮기더니 정작 모처럼 나온 단수는 복수로 변조하여 옮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아야 할 그 하느님의 명칭을 ㅂ 이같이 성서 본래의 사본과 상반되게 번역한 원인은 인간이 물체를 다루듯이 하느님을 망령되이 단수의 신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신과 영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느님은 믿는 자들의 유일한 아버지이시고 ㅅ 유일한 하느님이시지 ㅇ, 유일신이 아닙니다.

ㄱ.단2:2, 4:6~7 ㄴ.단4:8 ㄷ.마27:46 ㄹ.마23:9 ㅁ.요5:44, 17:3 ㅂ.마11:25, 27, 16:27 ㅅ.마6:9 ㅇ.마5:16, 23:9 ㅈ.요5:44, 17:3

유일신은 사람이 상상하여 만든 신이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임금입니다.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재(主帝)라는 ㄱ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되나. 의인의 육신은 비록 죽어도 여전히 산 자와 같이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ㄴ.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정신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 결국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이고 신입니다. ㄷ.

불경에는 신이라는 어휘가 없어서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신명을 불가에서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이라고 불러서 불경에는 무수한 왕이 나오고 동방의 무당들은 이를 만신(萬神)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별과 ㄹ 같이 빛나는 무수한 만왕의 머리는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실 ㅁ 유일한 지도자이시오 ㅂ. 그 큰 임금의 머리는 천자보다도 더욱 크신 ㅅ 천부이십니다.

박수와 점쟁이와 술사들이 있던 옛 갈데아는 상고시대 셈의 자손들이 퍼져서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인류의 종가가 있었고 그 종가의 종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은 수명이 수백 년씩 되어서 현대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근본이 되어서 수명이 백이십 세를 넘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인류가 펼쳐졌습니다. 노아의 장자가 셈이고 셈이 홍수 후 남은 아르박삿의 종손이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보다도 향렬이 높은 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대가 많이 지나서 그 갈데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어섰고 그 바벨론 제왕의 입에서 거룩하신 하느님과 인생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자의 영초, 곧 성령을 말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이 같은 소리는 마치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ㄱ.마 11:25 막 12:29 딤후 6:5 계 6:10, 17:14, 19:16 ㄴ.창 4:10 계 6:9~10 ㄷ.마 22:30 ㄹ.단 12:3 ㅁ.요 8:12, 9:5, 11:9 ㅂ.마 23:10 ㅅ.요 14:28 ㅇ.창 5:1~32, 6:3, 11:10~26 ㅈ.창 11:10~26 ㅊ.단 4:8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계명으로 주신 희생적 사랑이 없어서 문제이지, 그 알맹이만 빠지지 않았다면 영락없는 진리입니다.

성령과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입술로 토로하며 끝까지 하느님과 그 하느님의 나라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도 큰 육백 년 전이나 되는 인물이 유대교를 넘어 기독교인 같습니다. 그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가 하느님을 신봉하는 하느님의 편인지 그 반대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말만큼은 천사입니다. 말만큼은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소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존경하나, 행동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갔고 하느님의 성전 기구들을 노략질하여 제 소유로 만들었으며 금 불이로 자신의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모두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상제께서 말세에 온 세계의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말세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의 성(城)으로 상징하셨습니다.

인봉(印封)된 것을 떼어서 공개하시는 예수의 계시는 말세가 되어 그의 종들에게 이 거짓의 미혹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천자보다 먼저 나와 거룩한 곳을 선점하고 그곳에 멸망의 가증(可憎)한 것이 세워짐으로써 세상은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하는 것을 가르치신 계시입니다.

ㄱ.요 1:17, 8:45, 14:6, 18:37 ㄴ.단 4:34 ㄷ.왕하 24:13 단 1:1~2, 5:2~4 ㄹ.단 3:1~7 ㅁ.계 17:5, 18 계 17:18 ㅂ.단 12:4, 12:9 계 5:5, 22:10 ㅅ.딤후 4:1 ㅇ.단 7:25, 8:25, 11:36 살후 2:8 계 13:5~6 ㅈ.요 14:30 살후 2:3 계 17:8, 11 ㅊ.마 5:35 ㅋ.단 9:27, 11:31, 12:11 마 24:15 ㅌ.계 14:9, 11, 16:2, 19:20, 20:4

영혼을 죽일 권세는 없어도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무력은 그들 손에 있습니다. 말세는 어린양의 종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때여서, 예수의 말씀에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고 당신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으리라고 이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을 가리켜 그가 큰 나라를 이루는데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라고 고^ㄱ 예언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일곱 때 동안 이 동방의 바벨론 제왕을 들 나귀와 함께 소처럼 풀을 먹는 들짐승이 되게 하셨고^ㄴ 그는 모든 사람을 쳐서 제국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묘하게 아브라함의 적손자(適孫子)인 이스라엘과 이름이 흡사하듯, 이스마엘이 받은 복 또한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흡사하여 『내(하느님)가 그(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衆多)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ㄹ 이르셨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려니와, 하느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과 세우신다는^ㅁ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 동방에서 사는 민족의 어미가 된 하갈에게 하느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 이스마엘의 장래를 예언하여 주신 것인데, 동방의 무당들이 신령을 대감이라고 부르듯이 하갈은 하느님을 일컬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라고^ㅂ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를 낳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정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실인 사라의 여종입니다^ㅇ.

ㄱ.마10:28 ㄴ.마10:39, 16:25 막8:35 눅17:33 ㄷ.창16: 12 ㄹ.단4:16, 25, 33 ㅁ.창18:20 ㅂ.창17:19, 21 ㅅ.창16:13 ㅇ.창16:1

사라가 늙도록 자식을 갖지 못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씨받이로 들여 보내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여인이 하갈입니다^ㄱ.

하갈에게 나타난 신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으로 나타내신 하느님과^ㄴ 달리, 하느님의 사자입니다^ㄷ. 신이라고 해서 다 하느님의 신이 아닙니다^ㄹ. 같은 하늘의 신이라도 부리시는 신과 부림을 받는 신이 있어서 격이 다릅니다. 성신은 하느님의 부림을 받는 사자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신(영)입니다^ㅁ.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임을 성서에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ㅂ, 그 세 사람이 소돔으로 길을 떠났는데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는 두 사람으로 바뀌어 나타났고 성서는 그 둘을 천사라고 바꿔 가르쳐 주셨습니다^ㅅ.

수에 따라서 하느님이 하느님의 사자(使者)로 바뀌었습니다.

천사도 다 같은 하늘의 신이지만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천부와 인생 사이 어린양의 희생이 있어서 맺으시는^ㅇ 하느님의 열매 중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ㄴ 처음 열매와는^ㄷ 격이 다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의^ㄹ 열매인 이스라엘과 형제 중 동편에 살게 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은 그 이름들이 유사하듯 여러 가지가 유사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다리 건너 삼 대인 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삼 대째인 야곱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ㅁ 하느님으로부터^ㅂ 얻게 된 이름이지만,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대인 서자를 낳을 것을 알려준 천사로부터 얻은 이름입니다^ㄷ.

하갈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를 받았듯이 바벨론 왕 또한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같이 하느님으로부터 계시의 꿈들을^ㄹ 받았습니다.

ㄱ.창16:1~4 ㄴ.창17:1 ㄷ.창16:7 ㄹ.요일4:1 ㅁ.창1:2 욥2:28~29 막3:29 요14:26, 20:22 계4:5, 5:6 ㅂ.창18:1 ㅅ.창19:1 ㅇ.요12:24 ㅈ.계7:4 ㅊ.계14:4 ㅋ.창21:12, 22:2 ㅌ.창32:24 ㅍ.창32:30 ㅎ.창16:11 ㅎ.단2:1, 4:10

바벨론 왕이 다니엘 선지자와 다른 것은 깨달음이 없어서 해몽을 못 할 뿐이었습니다. 하같이 감찰하시는 하느님이라고 하였듯이 그 왕의 꿈에 『한 순찰자』가 나타났습니다ㄱ.

하느님께서 바벨론 왕의 꿈에 순찰자로 나타내신 것은 하느님의 선한 형상이니 아니오. 징벌하시는 자의 형상입니다. 그 왕은 이 꿈을 꾸고서 왕에서 쫓겨나 풀 먹는 들짐승과 같은 몸으로 전락하였습니다ㄴ.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열 뿔을 가진 야수의 등에 업힌ㄷ 다른 짐승의ㄹ 상징입니다.

바벨론 왕이 입만 살아서 하느님과 그의 나라를 찬송하였듯이,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도 영을 받아ㄴ 이적(異蹟)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의 어린양과 그의 나라를 찬양하나 육체로 임하셨고 또 그렇게 육체로 임하시는ㄷ 임금을 부인하는 자여서 겉은 새끼 양과 같은 두 뿔이 있으나ㄹ 속은 노략질하는 다른 짐승입니다ㄷ.

인생을 깨우치시는 성령도 영이고 인생을 미혹하는 귀신도 영이오, 선한 영이든 사악한 영이든 사람은 영이 담기는 질그릇 같습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낸다고 하여서 모두가 예수의 종들이 아닙니다ㄷ.

신앙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예수의 계명을 실행하여서ㄱ 자기의 십자가를ㄷ 지는 사랑에 있습니다.

계명을 받고서 나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그 계명을 받지 않았으니만 못한 것입니다ㄷ.

유대의 선생들이 계명을 가르치면서도 의(義)와 인(仁)과 신(信)과 ㅎ 같은 계명의 정신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고 종교라는 분야를 만들어서 하느님을 종교적 의례로써 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ㄱ.단4:13, 17 ㄴ.출33:19 ㄷ.단4:13~15, 23~25 ㄹ.계17:3 ㅁ.계13:11 ㅂ.계16:13~14 ㅅ.요1서2:17 ㅇ.계13:11
ㅈ.마7:15 ㅊ.마7:22~23 ㅋ.마7:21, 19:17 ㅌ.요14:21 ㅍ.눅9:23, 14:27 ㅊ.마12:45 ㅎ.눅12:47 ㅊ.벘후2:21 ㅎ.마23:23

유대인의 선생들이 하느님의 선하신 말씀을 자신 속에 받아들여서 ㄱ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지극히 선하기만 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백성을 속여서 노략질하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습니다.

율법에 하느님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복수의 주는 천지의 주입니다ㄴ.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이시건만ㄷ, 그들은 이방 풍속에 오염되어 하느님을 자기네 민족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유일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은 그 복수의 주님이 아니고는 천상천하에 다른 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ㄷ.

신은 사람과 다른 경계의 존재이지만 주는 나 자신이 그의 종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뜻은 유일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라고 하는 동방의 언어여서 동방민족의 조상이 된ㄹ 『셈의 하나님』이라고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ㄷ 정의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주의 철저한 종으로서 행동하였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ㄹ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조차도 갖지 못했던 이방인이 자기네 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신전들을 세워서 종교적인 의례로써 그 신들을 섬겼는데 이때 유대인의 선생들은 그 이방 풍속에 오염되어서 모든 민족의ㄷ 주를 자기네 민족의 신으로 취급하였고 자신의 실제 행실과 동떨어져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 신을 섬겼습니다ㄷ.

아브라함이 행실로 섬겼던 그 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만백성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성민(聖民)이 자기네 민족이라고 여겼고 그 성민 중에서 자기네는 특별히 선택된 성직자로 행세하였습니다.

ㄱ.요5:38, 42 ㄴ.마11:25 ㄷ.출19:5 시22:28, 67:4, 86:9 슥14:9 계1:5 ㅊ.창1:26 ㄹ.신4:39, 6:4 수2:11 ㅁ.창10:30 ㅂ.창9:26 ㅅ.요8:39 ㅇ.창26:24 ㅈ.출19:5 대하20:6 단4:17 요19:11 ㅊ.신29:22~36, 32:15~18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팔았으며 이웃을 제 몸같이 여기기는커녕 ㄱ, 스스로 거룩한 신분으로 행세하여서 일반인과 차별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백성이 하층이고 산당(山堂)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하층보다도 천하게 여겨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ㄴ.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성민이건만 ㄷ, 언약은 그들 스스로 버리면서 ㄹ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배반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양자 사이의 약조이건만 ㄱ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ㄴ.

복도, 화도 되는 것이 ㅅ 계명입니다. 계명을 받지 아니한 민족이라면 예루살렘이 그토록 참혹하게 화를 당할 ㅇ 원인도 없었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거늘,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여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어 특별이라는 소리를 내며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ㅈ.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의인이 된 ㅊ 터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상을 역설하는 침례 요한이 일어나 그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ㅋ.

거룩하게 꾸미려고 특별하게 제조한 종교인의 예복과 반대로 요한은 흉직하게 약대 털로 몸을 가렸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우는 회개를 ㅌ 역설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나 그 율법이 있는 이상, 그들이 불법을 행하여서 ㅍ 그 불법을 퍼뜨리고 선지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이 선지자와는 대칭되는 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ㅎ, 자신이 스스로 전공을 선택하고 사역(使役)이라고 사칭하고 자신의 설교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속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ㄱ.레19:18 마19:19 ㄴ.눅10:36 요4:9 ㄷ.신7:6, 14:2, 21 ㄹ.신31:16 ㅁ.출34:10 ㅂ.출19:5 ㅅ.신11:26, 30:1, 15, 19 수8:34 ㅇ.마23:37~38, 24:2 ㅈ.눅18:11 ㅊ.눅5:32 ㅋ.마3:7 ㅌ.마3:2 ㅍ.마7:23, 23:28 ㅎ.렘14:14~15

그들은 누구라도 범접하지 못할 지극히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유일신을 찬양하였고 그들은 의인과 선지자들도 특별하고 거룩한 자로 받들어 비석을 세우고 무덤은 가꾸며 기념하였습니다 ㄱ.

바로 자기네같이 이 세상의 재력과 권력의 편에 섰던 자들이 의인과 선지자를 모함하고 ㄴ 죽였으며 ㄷ 그때도 여전히 의인과 하느님의 일군을 핍박하고 있으면서 바로 자기네가 과거 핍박을 받았던 의인과 선지자의 계통이라고 위장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저들과의 대칭이 이것입니다. 요한은 태어난 자체가 레위인 ㄹ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서 율법으로 십일조를 받으며 성전의 일을 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ㅁ 하느님께서 친히 시키신 대로 ㅂ 일하였던 하느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은 요한의 뒤를 이어 나오신 예수이십니다.

그들의 시각에는, 감히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며 자기네들과 전혀 다른 의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곱게 볼 수 없는 마당인데, 예수는 그 요한과도 또 달라서 아주 하느님의 아들이시랍니다.

게다가 예수는 이적까지 일으켜 흑세무민하니, 이는 귀신 중에도 왕 귀신이 들려서 행하는 ㅅ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느님이시오. 다른 주는 아니 계시는 ㅇ 그 하느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는 복수의 하느님이십니다.

천상의 하느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유일하신 아드님이 계셔서 복수요 그 하느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늘도 땅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어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유대인의 신도 아니고 명산에 있는 신당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사마리아인의 신도 아닙니다.

ㄱ.마23:29 ㄴ.왕상18:21~22, 렘38:4 ㄷ.왕상21:13 대하24:21 마21:35 ㄹ.민1:47~51 ㅁ.눅1:5, 67 ㅂ.눅3:2 ㅅ.마12:24 ㅇ.신4:39 ㅈ.요4:21

유대인의 신이면 사마리아인의 신은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유대인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같이 사마리아인의 아버지이십니다.

천부께서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북방 인이나 남방 인이나 천주를 모시는 그 모든 이의 하느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주신 것은 언어와 종족이 서로 달라 혼잡한 인류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에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애초부터 하느님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구하시려는 그 구세(救世)가 유대인에게서 나도록 언약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세주가 곧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여 부르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꼭대기의 처음만이 아니십니다. 그 처음의 상대인 끝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하늘보다 먼저이시고 높으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인생보다 나중인 인자가 되시어 인생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섬기심으로써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자, 그 또한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의 어린양을 믿는 자에게는 인간이 범접하지 못할 지극히 거룩하시고 두려운 신이 하느님이 아니시오.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셔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 하나의 신이시면 인생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죽어 낫이 되어서도 죄를 지은 업보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갇혀야 할 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디까지나 거룩하신 윗전이시고 인생은 어디까지나 그 아래 것이어서 인간은 그 저속함을 벗어날 길이 없이 멸망할 뿐입니다.

ㄱ.요4:21 ㄴ.요14:9 ㄷ.요4:22 ㄹ.요1:41, 4:25~26 ㅁ.사41:44, 44:6, 48:12 ㅂ.창1:3~5 요17:5 ㅅ.막10:45 ㅇ.요1:18 요1서5:20 ㅈ.마23:9 ㅊ.시14:1~3 마19:17 ㅋ.요8:34 ㅌ.마8:12, 22:13, 25:30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인생의 허물을 대속(代贖) 하심으로써 성(聖)과 속(俗) 사이의 가로막힌 막을 찢어 없애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인간이 범접하지 못할 지극히 거룩한 신이 하느님이시나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속죄(贖罪)를 받고 그 거룩하신 신에 접신되게 하신 것이요.

신 내림이 되어 인생 속에 들려진 그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되면 인생이 흠 없고 티가 없이 거룩한 아들의 몸으로 거듭 태어날 언약의 인장(印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인생의 임자는 하늘의 임들이신 그 「우리」 이시오.

유대인들은 성서의 어떤 말씀보다도 중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주인(主)을 증언하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우리」 중의 한 분께서 육신이 되시어 그들 앞에 나타나셨건만, 그들은 그 인생의 주를 무시하여 배척하였습니다.

하늘보다 먼저이신 임께서 가장 나중에 지어진 인생보다 더 나중에 인자(人子)가 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임께서 인생보다 아래에서 인생을 섬기는 종이 되시었기 때문에 인생이 거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은 하느님네의 「우리」 중 먼저이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영이 아니라 나중에이신 하느님께서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의 잔을 받으심으로써 비로소 보내심을 받아 땅에 계신 신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독생(獨生) 하신 하느님이 아니시면 보내심을 입는 것도 없는 영이시니 저속한 인생과는 상관이 없이 그대로 하늘의 거룩하신 하느님의 몸이실 뿐입니다.

성령은 어린양께서 밝히신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진리의 영이오, 그 영을 사람이 받아 다시 살아나는 존재는 더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ㄱ. 마27:51 ㄴ. 출19:12 ㄷ. 출31:13 ㄹ. 마5:45 ㄺ. 롬8:19 ㄻ. 엡1:5 ㄼ. 계14:4 ㄽ. 고후1:22 ㄾ. 엡1:13, 4:30 ㄿ. 창1:26 ㅀ. 창3:22
 ㅁ. 요8:49 ㅂ. 마20:28 ㅃ. 요13:4, 14 ㅄ. 요14:25-28 ㅅ. 계5:6 ㅆ. 요4:24 ㅈ. 요14:17 ㅊ. 요6:63 ㅊ후3:6

하느님의 생기를 받아 거듭 태어난 신선이 거처하는 동산은 마지막 일곱째의 날이 거꾸로 으뜸이 되어 있는 창세기의 제 이장에야 비로소 기술된 후천이어서 창조 대신 심으셨다고 말씀하신 낙원입니다.

하느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있어서 인생이 거룩한 존재로 부활하기에 제 칠일이 거룩합니다. 거룩함과 속됨이 따로 없던 낙원이었는데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가 있어서 인생이 정죄를 받고 저속한 세상이 되었으나, 그 반대로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저속한 인생이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 자신이 선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겨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 반대로 진리를 주신 어린양의 교훈을 따라 내 이쪽이 나중에 되고 낮은 자가 되어서 하느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에 이릅니다.

처음이 나중에로 전락하고 나중에 처음으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일수록 높아지고 작은 자일수록 큰 자가 되나 높은 자가 되어 교만할수록 아래가 되어 음부(陰府)에 갇힙니다.

스스로 성직(聖職)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저주하셨으나 그 반대로 죄인과 창기에게는 너그러우시어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존대를 받는 자들과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종교인들은 적대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들은 가까이하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모두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할 형제들이건만 착취하는 부류가 있어서 얼굴에 땀 흘리는 농부가 천시받고 그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던 어부는 더 천대받는 속세가 되었습니다.

ㄱ. 히브리성서의 직역 ㄴ. 출31:13 ㄷ. 창2:3 ㄹ. 창3:22 ㄺ. 계20:6 ㄻ. 요 17:21-23 ㄼ. 마18:4, 23:6, 12 ㄽ. 마16:4, 20:26 ㅂ. 눅11:42, 43, 44 ㅃ. 마 21:32 ㅄ. 마9:12 ㅅ. 눅15:1-2 ㅆ. 눅16:15 ㅈ. 마6:2 ㅊ. 눅6:26 ㅊ. 창3:17-19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백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특정한 설로 포장해서 유식하게 믿지 않고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그 하느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귀신의 왕이 씌었다고나 마귀로 몰아세우는 선생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비교됩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능력이 충족하시면서도 궁궐에서 만인이 선망하는 고위층 인사를 대동하신 것이 아니오. 모든 이가 멀리하는 문둥이나 혈루증 환자같은 외롭고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높아서 하느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그 악입니다.

예수께서 모욕과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악한 세상에서 그 반대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가 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그 꿈은,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을 본 꿈이었습니다.

왕이 꿈 꿈을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기를, 그 우상의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를 해몽하기를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빵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ㄱ.눅10:21 ㄴ.마12:24 ㄷ.요8:44 ㄹ.단2:31 ㅁ.단2:32-35 ㅂ.단2:38-40

이집트의 바로가 신상을 세우고 자신을 그 신과 연계시켜서 자기의 권좌를 강화하였듯이 바벨론 왕은 자신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게 함으로써 못 민족의 사상을 자신을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러 하늘의 네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서 나온 사방의 네 짐승의 계시와는 달리, 이 우상의 계시는 세계의 제국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시대적으로 보여주신 계시이고 그중에서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나올 마지막 제국을 특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철과 같이 부수고 빵을 강경한 쪽과 또 한쪽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철에 의해 부스러질 유약한 쪽으로 양분되어서 서로 섞여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결국 그 철과 같은 강한 쪽이 못 나라를 부수고 빵아 세계를 장악하는 때에 산에서 뜨인 돌이 강림함으로써 이 세상 나라는 끝난다고 하는 계시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분열된 것은 다민족이 섞여 사는 제국이면서도 여론이 양단으로 나뉘어서 피차 화합하지 못하느니 이념이고 결국 서로 부딪혀 철과 같이 강경한 쪽이 천하를 삼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 인간의 손으로 이룩한 세상 나라와는 달리 인간의 손으로 아니 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있어서 그 돌이 내려와 인간이 세운 나라를 때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바, 결국 그 뜨인 돌의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산에서 뜨인 머리 돌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느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에서는, 옛 바로왕조가 바벨론과 같이 여러 나라를 압제하던 제국이었기, 바벨론 전 이집트부터 수를 헤아려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ㄱ.단7장 ㄴ.단2:40-43 ㄷ.단2:40-41 ㄹ.단2:44 ㅁ.단2:43 ㅂ.단2:34-35 ㅅ.단2:44 ㅇ.마21:42 막12:10 눅20:17 행4:11 ㅈ.계11:8

그 계시를 본 요한의 때를 기준으로 일곱 중에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여섯째는 요한의 때 있는 로마 제국이고 종말에 나올 일곱째는 반드시 잠깐 있을 이 세상의 통치권임을 말씀셨습니다 ㄱ.

일곱째 머리가 영화로운 곳을 ㄴ 점거하자마자 그 이후로는 다니엘이 말한바, 날자 수를 헤아릴 만큼 ㄷ 잠깐입니다. 인류 삼 분의 일이 죽는 전화(戰禍)를 위시하여 견잡을 수 없는 재앙들이 이 세상을 강타하여 이집트 이래로 제국이 바뀌어 가며 내려오던 인간의 나라가 자멸하는 ㄹ 것입니다.

신학을 하고 성서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성서에서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 쪽에 붙이고 그 반대로 경고와 재앙의 예언들은 별 해괴한 학설들을 붙여서 교인들이 그 예언들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상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현실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날들을 하느님께서 감하시지 않으면 지상의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ㄹ 목전에 다가와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 계시들 외에 정한 때 끝에 관한 ㄴ 계시가 또 있는데 곧, 수양과 숫염소의 계시입니다 ㄱ.
강가에 두 뿔 가진 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서 나온 ㄹ 메대(다리우스왕의 메디아)와 그 뒤에 나온 바사(코레스왕의 페르시아)로서 ㄱ 그 뿔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해 치받아서 동방의 대국을 이루었는데, 땅에서 떠나 지면에서 유리하는 숫염소가 나와서 그의 뿔로 수양을 무찌르는 서방의 ㄷ 세력이 등장하는바 이 숫염소가 헬라의 왕이고 거기서 나온 길고 큰 뿔은 첫째 제왕이라고 ㄱ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으로 본 우상의 금, 은, 동, 철이 이 뿔들의 계시를 통하여 바벨론의 뒤를 이룰 제국들의 실명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ㄱ. 계17:9~11 ㄴ. 시48:2 겔38:12 단8:9, 11:16, 41, 마5:35 ㄷ. 단12:11~12 ㄹ. 애4:6 단2:34, 45, 8:25 막14:58 ㄹ. 마24:22 ㄴ. 단8:17, 19, 11:27, 35, 40, 12:4, 9 ㄱ. 단8:1~27 ㄹ. 단5:28 ㄷ. 단9:20 ㄹ. 단8:5 ㄱ. 단8:21

바벨론이 금이고 ㄱ, 바벨론보다 질이 낮은 메대가 은이며, 메대보다는 큰 뿔을 가진 바사(페르시아)가 동이고, 넷째로 나온 철은 사상적 근본이 전혀 달라서 특정한 제국의 이름이 아닌 헬라라고 하셨습니다.
동방의 제국이나 서방의 제국이나 모두 같이 인생을 미혹하여 죽였던 들짐승의 ㄴ 종류나, 농사짓는 강가에서 나온 동방의 제국과 땅에서 떠나 지면에 유리하는 ㄷ 서방의 제국은 그 사상적 기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들짐승 마음을 받아 ㄹ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나귀와 함께 사는 들짐승이 바벨론 왕이었고 그 바빌로니아 후에 미디어와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나 그 동방의 제국을 분노한 힘으로 무찌르는 서방의 헬라가 있어 그곳에서 발생한 길고 큰 뿔이 긴 세월을 제패하다가 말세가 가까우면 그 길고 큰 뿔이 꺾이고 그 헬라의 마음으로부터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넷째 짐승이 나와 세상의 못 나라를 정복합니다.

서방의 그 숫염소에서 난 강대하고 긴 뿔은 꺾이고 하나의 제국 대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뻗은 네 뿔은 ㄹ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나온 ㄴ 큰 짐승 넷과 같습니다.
강가에서 나온 짐승과 달리 네 짐승이 해안의 도시국가였던 헬라의 이념으로부터 나온 세력이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 네 나라 마지막 때 그 수염소에 속한 다른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뻗어서 ㄱ 세계를 정복하고 만왕의 왕을 ㄹ 대적함으로써, 이 세상의 권세가 최후를 맞습니다.
이 네 짐승은 때가 되면 년, 월, 일, 시에 사람 삼 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된 ㄱ 무력을 가진 강국들입니다 ㄷ.
이 네 나라 마지막 때가 ㄱ 세상 나라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헬라의 몸통에서 한 뿔이 ㄷ 나와 순식간에 세계를 장악하고 곧바로 재림하시는 어린양과 전쟁을 ㄹ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ㄱ. 단2:38 ㄴ. 단5:21 ㄷ. 단8:5 ㄹ. 단5:21 ㄹ. 단8:8, 22~23 ㄴ. 단7:2 계13:1 ㄱ. 단8:9 ㄹ. 단8:25 ㄷ. 단9:14 계9:15 ㄹ. 단7:2, 11:4 계7:1 ㄱ. 단8:23 ㄷ. 단7:8 계17:11 ㄹ. 계16:14, 19:19

지금은 결박되어 있으나 그 결박이 풀리면 ㄱ 땅 사방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전운이 몰려 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바람이 터지고 그로부터 쏟아지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 삼분의 일이 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라고 여쭙었고 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ㄷ 이르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그 일차와 이차 세계적 난리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세상 나라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있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서부터가 세계적 재난의 시작이고 ㄹ 두려운 적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큰 네 짐승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라고 하였는데 ㅁ,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마지막에 나올 짐승의 몸이 사자와 곰과 표범이 합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몸뚱이는 큰 야수들이 연합한 덩어리이고 머리에 열 뿔이 있으니 십 대 강국의 수뇌들이 의결권을 가진 ㅂ 세력입니다.

저마다 세계 패권을 자랑하던 야수들이 합친 넷째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다국적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는 여론이 갈려 있습니다.

옛 헬라의 도시국가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을 지향하였던 이념과 강력한 공동질서를 지향하였던 이념으로 양분하였듯이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ㅅ 덩어리입니다.

한자로 서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會社)의 그 모일 회(會)와 땅 귀신 사(社)를 거꾸로 쓰면 사회(社會)가 되듯이 그 덩어리 자체가 서로 상반하는 두 이념이 있는 모순의 덩어리입니다.

ㄱ.계9:14 ㄴ.계9:18 ㄴ.마24:3 ㄷ.마24:4~6 ㄷ.마24:7 ㅁ.단7:3~7 ㅂ.계13:1~2 ㅂ.단2:44, 7:7 ㄷ.계17:12~13 ㅅ.단2:43 ㅅ.단2:41~42

지금은 나라들이 세계화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파국을 맞으면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아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진흙덩어리 같습니다. 이때 철같이 강력한 이념을 내세우는 정당이 일어나 모략을 베풀어 ㄱ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아주 잠깐 ㄴ 장악합니다.

세계가 양분된 진흙과 철의 두 세력을 다니엘은 남방과 북방 왕으로 칭하고 마침내 그의 연합군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ㄴ 북방 왕은 왕족도 아니고 나라의 영광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고 ㄷ 하였습니다.

그 같은 왕국의 세습적인 왕이 아니라 비천한 자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변으로 나라를 얻는 자라고 하였듯이 거짓을 선전하고 유세함으로써 국권을 장악하는 세상을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과 북방 세력이 대립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두 왕을 모형 삼아서 이미 예정된 ㄹ 먼 훗날 마지막 때 ㅁ 세계적으로 대립할 두 연합세력의 양상을 밝힌 것입니다.

숫염소로부터 하늘 사방을 향하여 뺨은 뿔이라고 ㅂ 하였듯이 세계가 동서 진영으로 나뉘고 다시 남방과 북방세력이 나와서 네 짐승이오.

동서 양대 진영으로 대립하는 때가 지나면 먼저 남방세력이 진흙과 같은 체제를 구축하나 그 후 모략을 베풀어 기존체제를 무너뜨릴 북방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가 넘치는 군대에 매몰되어서 ㄴ 세계 강대국들이 연합한 일곱째 머리가 칼에 의하여 죽을 상처를 ㄷ 입는 때입니다.

일곱째 머리에 속한 ㄷ 북방 왕은 홀연히 거짓을 행하며 올라와 여러 성을 공략하여서 때가 이르기까지 세계를 제패한다는 ㄴ 예언입니다.

북방 왕은 모략을 베풀어 기존 질서의 붕괴를 일으킴으로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뽑는 국제적 대혼란이 일어나 바로 그 칼에 의하여 열 뿔을 가진 일곱째 머리가 죽게 된 상처를 입는 것이어서 이것이 계획된 모략입니다.

ㄱ.단11:25 ㄴ.계17:10 ㄷ.단11:31 ㄹ.단11:21 ㄺ.계11:8 ㄻ.단11:27, 29, 35, 36 ㄼ.단11:40 ㄽ.단8:8 ㄾ.단11:22 ㄿ.계13:3, 12 ㅀ.계17:11 ㅋ.단11:24 ㅋ.단8:25, 11:24, 25 ㅌ.마24:7 ㅎ.계6:4

그 일곱째 머리에는 열 뿔이 있는데 또 다른 한 작은 뿔이 기적같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 홀연히 남쪽과 동쪽과 중앙의 영화로운 곳을 향하여 뻗어서 천하를 삼킴으로 그의 계획된 모략을 성취합니다. 그의 군대가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는 날부터 네 바람이 몰려 부는 시각까지 어린양의 교회는 분초를 다투어 피신처로 도망하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는 진실하지 못한 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세상 만민은 그의 꾀술(詭譎)에 속아서 대혼란에서 세계를 구할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나 실상은 끔찍하게 무서운 정권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바벨론 제왕이 사람 모양의 우상을 제국의 상징물로 세웠듯이 인간이 이룩한 세계통일의 성취를 찬양하고 그 통일정부를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어 세계 만민은 그것에 경배하며 그의 지배에 의지하여 사는 그의 분자가 됩니다.

그는 재림하시는 어린양에 대적하여 천하 만국의 통치자들을 모아서 회합을 열고 최후의 전쟁을 결의할 짐승입니다. 그가 갖는 통수권에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며 내려오던 세상 나라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급변하는 때입니다. 그는 갑자기 나와 잠깐 행세하다 바로 멸망할 자여서 지금 이후로 세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노아가 앞으로 올 재앙을 알고 미리 예비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은 머리를 들고 일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등불을 밝혀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천국의 증인들을 처형할 성을 영적으로 일컬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신 계시와 같이 때가 되어 이 세상을 장악할 성은 정신적으로는 옛 소돔이나 이집트나 로마와 같습니다.

ㄱ.계13:3 ㄴ.단8:9, 11:16, 41 ㄷ.마5:35 ㄹ.단8:9 마24:15 ㅁ.계7:1 ㅂ.24:17~20 계12:6 ㅅ.마24:16 ㅇ.마24:24 계19:20 ㅈ.계13:8 ㅊ.13:14 ㅋ.계16:14 ㅋ.사54:7 계17:10 ㅌ.마24:7 ㅎ.눅21:28 ㅊ.마25:1~13 ㅎ.12:35 ㅊ.계11:8

만왕의 왕께서 가라사대 말세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이르셨듯 롯의 가족이 탈출하여 도망하였던 옛 소돔의 사회상은 말세 사회상의 거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였던 옛 이집트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멸망하였던 예루살렘 역시 말세에 하느님의 백성이 나오지 않으면 화를 당할 사회상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소돔과 옛 이집트와 그리스도를 처형한 예루살렘이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처형 선고를 받으셨듯이 말세에 그의 종들 또한 처형될 성은 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성서는 이 세상에 속한 만국과 그 차후 세대인 그리스도의 왕국과의 관계를 여러 모형으로 반복하여 증언하신 하느님의 영적 말씀입니다.

성서는 열 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강가에서 발상한 동방의 옛 제국들과는 달리, 말세에 이 세상을 제패할 세력의 기원은 바다에서 발상한 옛 도시국가입니다.

고대 헬라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지 않고 장정들이 결탁하여 떼를 결성하고 바다에 나아가 물자들을 운송하던 선박이나 다른 나라 마을을 습격하여 노략하고 부려 먹을만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와 노예로 삼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해안지방에 도시국가들이 생겨났으며 그 도시국가들은 자기네끼리 또 다시 결탁하여서 그들의 침략에 해를 입은 민족들의 보복을 막았습니다.

동방의 한자로 사내 남(男)이 밭을 가는 힘이지만 그들은 창칼 들고 싸우는 힘이 되어 그것에 의지하여 살았기 성을 쌓고 살았던 가인과 같이 지면을 유리하며 땅에 닿지 않는 자라고 하였고 가인이 분노하듯 분노하여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네가 아니면 누구든 적으로 몰아 쳐부수고 죽이는 자일수록 그들 국가에서는 영웅이 됩니다.

ㄱ.눅17:32 ㄴ.마23:37~38 ㄷ.마20:18 ㄹ.요8:23, 18:36 ㅁ.단8:22 ㄴ.눅16:8 ㅂ.단7:3 계13:1 ㅅ.단8:3, 6 ㅇ.창4:17
ㅈ.창4:14 ㅊ.단8:5 ㅋ.단8:6~7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이룩한 전사들은 동료 하나를 잃으면 그만큼 무력이 약해지고 이는 국가의 생사문제로 직결되어서 남성의 몸뚱이와 체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 도시국가의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떠받들어 숭배하고 찬양할 대상이 노획물과 노예를 끌고 돌아오는 남성의 몸뚱이들이어서 전사의 적나라한 육체를 조형하여 그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략질하게 된 것은 고대로부터 인류의 제국들이 세워진 나일 강과 유브라테 강 유역 사이에 지중해가 있어서 그 지중해에 일찍부터 동방의 상인들이 해로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던 선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방의 왕국들과 선박을 제조하여 무역하였던 ㄱ 다윗 왕조의 문화를 모방하여 자기네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방하여서 자기네 것으로 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동방의 문물이 사냥감의 것이고 대적의 것이어서 쳐서 노략질하고 노예로 만들어 주인노릇을 하는 무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그들은 자신의 신들을 제작한 것이고 저들이 믿는 전래의 이야기와 시문이 있음을 보고 그들은 시로 신화를 극작하였고 읍이나 솔로몬과 같은 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철학자들이 생겨나 서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서로 결탁한 전사들이 회합하여서 출전을 결정지었고 또 출전하려면 전사 개개인을 통솔하는 자가 불가피하였기 회합하여서 지도자를 뽑아 세웠으므로 민주 공화국의 사상이 발상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오로지 상대를 물리치고 군림하기 위하여 당이라고 하는 집단을 결성하고 그 덩어리의 힘으로 유세전을 펼쳐서 국가의 대표가 선출되는 체제를 낳았습니다.

ㄱ.왕상9:26, 10:22, 22:48 ㄴ.단7:3 계13:1 ㄷ.단8:3, 16

그 대표권을 가진 자들이 다시 더 큰 집단으로 결탁하여 범국가적인 덩어리를 이루고 그 덩어리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군대의 통수권을 위임함으로써 ㄱ 결국은 인류의 통수권자가 세워지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덩어리는 층 위에 층을 이루는 집단체제의 권력조직입니다. 집단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 회사를 이끌어가듯, 만국이 동등한 권한을 갖지 않고 만국 위에 면류관을 쓴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뚱이는 무력을 가진 야수들의 덩어리이고 그 머리에는 십 대국의 명예가 붙어 있어서 이 세상 만국의 대표권을 갖습니다.

십 대국의 지도자들 역시 나라를 소유한 군주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서도 임금처럼 통치하는 권세를 시한부로 위임받은 국가 통치권자들입니다.

그 열 나라 대표권자들이 모여서 또다시 그들의 대표를 뽑고 그에게 자기네가 가진 권한을 위임하여서 세계의 통수권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 공화국이 필연이 다다를 수밖에 없는 종착지입니다. 그 열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것과 같이, 그들 또한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여서 다국적 군대를 통수하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요, 이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세계가 도탄에 빠진 직후의 상황입니다. 민족과 나라마다 서로 자기네 국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투쟁하는 이기적 집단이기에 각국의 원수가 자국의 군사 통수권을 지니고 있어서는 또다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빼들 수밖에 없어서 강대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들의 통수권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있는 한, 개개인은 더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의 대표를 뽑았으니 결국은 절대 독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ㄱ.계17:12~13 ㄴ.계17:12 ㄷ.계17:13

처음부터 각국의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그 정상들의 정상을 세우려고 계획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밀한 꾀계(詭計)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세계 정권이 세워집니다. 국제적 경제체계가 무너짐으로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계적 혼란과 함께 발생하는 기근과 전염병이 강력한 세계적 사회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 대국에 낄 만큼 크지 아니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고대에는 있었으나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는 사라져 있다가 그 후 다시 나타난 나라입니다 ㄱ.

그 나라에서 비상한 선전으로 온 세계에 큰 열풍을 일으키는 한 정당(政黨)이 일어나 그의 나라뿐 아니라 십 대국 중 세 나라가 이 정당에 합몰됨으로써 ㄴ 나머지 개별적인 일곱 국가의 정상들은 십대국 회의에서 꼼짝 없이 그 다국적 정당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ㄷ 범국가적 공포와 무질서의 이수라장 속에서, 그 전란으로 치명상을 입었던 연합세력이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우뚝 섬으로써 온 세계가 경탄하여 따르게 ㄷ 되고 그 정당의 대표자는 전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제일차 세계대전 후에 그 전쟁의 상흔을 딛고 국가 사회주의라는 새 질서를 부르짖으며 부상한 나치당과 같은 정당이 유럽을 초월하여 온 세계를 무대로 더욱 무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나치당의 히틀러가 세계에 엄청난 전란을 일으킨 살인마였으나 그는 군주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뽑은 국민의 지도자였습니다.

ㄱ.계17:8 ㄴ.단7:20, 24 ㄷ.계13:3~4 ㄹ.마24:7

세상에 어느 군주가 무력으로 세워져 무력으로 지켜는 그의 나라를 전쟁도 않고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자가 있겠으리오만, 그는 처음부터 전시가 아닌 때에 꾀계(詭計)와 꾀술(詭譎)로 만인을 미혹함으로써 ㄱ 권력을 쟁취하는 인물입니다.

나치당의 선전 방송에 독일 국민 대다수가 환호하였듯이 세계 만민이 온통 이 적그리스도의 선동적인 선전에 열광하는 ㄴ 대세 속에서 그 어떤 국가라도 그와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 국가 자체가 적 그리스도와 똑같이 당의 유세를 통하여 집권한 같은 종류의 국가들이기,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열광하는 대중의 여론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계를 향하여 인류의 단합을 외치나 그 구호의 이면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증오하여서 ㄷ 타도하자는 전의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범국가적 공동 사회의 안보를 구실로 세계 만민의 이마나 오른손에 국제사회 시민으로서의 신원을 증명하는 수치의 표를 받게 하여 그 표로써 그 사회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조차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류의 이름으로 인류를 통치하는 하나의 체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은 이마나 오른손에 있는 부호를 통하여 빼도박지도 못하게 통제로 조종되는 조직의 분자가 되고 그 체제를 거부하는 자는 무기의 소유를 불문하고 인류의 공동체에 반하는 반 인류의 범죄인으로 몰려서 처형을 받습니다.

과거 인간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로 뭉쳐서 인간의 성을 이룬 것이 바벨의 탑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인류의 단결을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하나의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들로 혼잡하게 하시어서 그 단결을 흠으셨을까?

옛 뱀, 곧 사탄의 미혹이 결국 이룩하는 것이 인류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리는 하나의 집단 체제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인류가 자신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만왕의 왕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ㄱ. 단8:23~25, 11:21 ㄴ. 계13:3~4 ㄷ. 요15:19 ㄹ. 계13:16~17 ㅁ. 창11:1~9

상제께서 장래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이 세상 임금은 마침내 통치조직의 세계화를 이룩함으로써 세계공화국을 세우는 정복자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시저) 외에는 자기네의 임금이 없음을 증언하였고 그들의 사주를 받았던 백성은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의 임금인 가이사가 있는 이상, 스스로 왕이라고 천명한 예수는 엄연히 가이사의 역적이라고 주장하며 군중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임금 가이사가 공화체제로부터 독재의 권한을 부여 받아서 못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는 듯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 적 그리스도는 마침내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을 만들고 통치하는 나라의 편에서 서서 판단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역적입니다.

열 뿔이 있는 짐승은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운 이태조에 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역적으로 처형된 사육신의 충절을 조선의 백성이 그 조선의 백성으로서 역적의 편을 드는 것임에도 숭상한 것은 나라를 정복한 영웅을 찬양하여 자신들의 영달을 꾀하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임금을 위하여 멸문의 화를 스스로 택한 충의를 숭상하는 인정 때문이 아니겠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이시고 독생하신 어린양께서는 천부로부터 천상뿐 아니라 천하의 모든 권세를 상속 받은 유일하신 임금이요 지도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민주주의가 웬 말이오.

말세에 이 세상을 장악하는 권력은 사탄이 주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어린양과 세상 임금과는 서로 대적이어서 말세에 온 세계를 미혹하여 권세를 잡는 자를 적(敵)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다.

ㄱ. 계13:15 ㄴ. 요14:30 ㄷ. 요19:15 ㄹ. 눅19:14 ㅁ. 요19:12 ㅂ. 마23:9 ㅅ. 마28:18 ㅇ. 마6:13

자고로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였다면 순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에 업혀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도모하는 자는 어린양은 물론 어린양을 따라 순교를 당한 성도들과 적이 되어 어린양의 일군들을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이제 깨어나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동이 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명에 깨어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는 어린양의 일군입니다.

말세에 일군들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들의 임금과 이 땅 위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큰 소리로 다시 증언하는 것이요.

이들이 이 세상 정권에는 가장 골치 아픈 무리입니다.

성서에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짐승이 이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이 세상 권력의 반동으로 몰려서 처형받는 것을 일컬어 짐승의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권력이 다국적 연합군을 예루살렘에 진격하도록 명령하여 그곳을 점거하고 그 세계의 중앙에 인류가 마침내 성취한 대단결의 상징이라며 세상 만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군대는 그곳에 인류를 대표하는 우상을 세우나 그날로부터 멸망까지는 선지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날 짜 수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는 실상 극히 잠깐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 가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우상에게 봉화하는 육신의 체전이 신성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 인간이 만들고 이룩한 것을 신성시하여 찬양하고 그것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서는 그 세워질 상징을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소유주를 이러한 식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ㄱ.계13:4 ㄴ.요일2:18 살후2:3 ㄷ.마10:37~39 ㄹ.마25:6~7 눅21:28 ㅁ.계7:2~3 ㅂ.계10:1~11 ㅅ.계11:7 ㅇ.마24:9 계11:7~10, 13:7 ㅈ.단12:11~13 ㅊ.계17:10 ㅋ.계17:8 ㅌ.살후2:3

속는 줄 안다면 그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성서만이 이를 미혹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인본주의에 도취하여 만민을 이 거대한 공화의 체제로 이끌고 그것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질서를 세우는 이 시점이 거꾸로 하느님의 질서는 거두어지는 때입니다.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불가항력의 대 환란이 시작되어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란과 기근과 급성 전염성 괴질과 짐승의 살생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뒤를 이어, 마치 큰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나면 그루터기만 남듯이 하느님의 점지 하심을 입은 자들만 겨우 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으레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선전하듯 그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의 성취를 선언하여 세계 만민은 그를 구세의 영웅으로 환호하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저항 자들을 말살함으로써 엄청난 인명을 살해하는바, 이것이 짐승의 살생입니다.

세계가 둘로 나누어 지어지지 않았건만 그는 인류 자신을 위한 인류의 단합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위하는 부류와 쪽을 내는 것이고 그에게 미혹되면 될수록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임명하신 유일하신 임금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증오합니다.

미워하고 탄압하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고 탄압을 받는 자는 어린양의 점지를 받아 그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 세력을 무너뜨릴 자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져서 무력을 지닌 공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언약대로 신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그러한 신의 조화(造化)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코앞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ㄱ.마24:15 단11:31 ㄴ.계13:11~15, 17:1~7 ㄷ.마24:21 단12:1 ㄹ.계6:3~8 ㅁ.사34:4 마24:29 계8:7~13 ㅂ.사6:13, 10:20~23 ㅅ.마24:22 ㅇ.마23:10 ㅈ.마10:22, 24:9 눅1:71, 6:22 ㅊ.요8:23, 18:36 ㅋ.요15:19, 17:14

상제께서 ㄷ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시니, 이 세상을 장악한 세력을 당신의 조화로 멸하실 ㄹ 원군과 그를 따르는 천군들입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거짓 것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하느님께 속한 참 임금께서 오심을 거듭거듭 비유로서 예언하신 것이 성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창세로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정절을 지키는 자는 ㅂ 세상에 속한 나라의 역적 이어서 온 세계의 만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ㅅ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까지 미움을 받아 권력에 고발되고 ㅇ 처형을 받게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같이 말세에 해산의 고통을 ㅈ 치르는 것은 새순과 같은 ㅊ 하느님의 종들이 일어나 영원한 복음을 ㅋ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ㅌ 증언함으로써 못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쉼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ㅍ 세상의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또 다른 회중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 회중을 성서에서는 해를 입고 발아래 달이 있고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로 ㅎ 계시하셨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ㅊ 음녀(淫女)와는 대조적으로 저희 주를 향한 정절을 가져서 이 세상 세력에 굴하지 않는 것이고 굴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의 고통입니다.

ㄱ. 단7:19, 8:9~12 계13:4 ㄴ. 요18:36 계13:10 ㄷ. 단2:34, 8:25 ㄹ. 사32:1 ㅁ. 단2:44 계17:14, 19:15 ㅂ. 딤펢전2:15 계14:4 ㅅ. 마10:22, 24:9 눅21:7 요15:19 요일3:13 ㅇ. 마10:21 막13:12 ㅈ. 계12:1~2 ㅊ. 슥3:8 마24:32 ㅋ. 계14:6 ㅌ. 단2:44, 6:26, 7:14 미4:7 ㅍ. 계7:9~14 ㅎ. 계12:1 ㅊ. 계17:4, 18:16

상제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언하셨기에 ㄱ 세상이 그를 미워한 것이고 그 상제를 따르는 종들 역시 성령을 받아 세상을 책망하기에 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임금을 섬기는 것을 이 세상의 권력이 용납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이김으로써 ㄷ 그리스도의 종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ㄹ.

그들이 구속되어 사형되는 사건에 온 세계의 만민은 이를 축하하여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ㅁ.

하느님께서 이같이 이 여자를 잠깐 버리심으로써 ㅂ 그 여자는 도망을 하는 ㅅ 신세가 되나 이 여자의 치욕과 고난은 날짜를 헤아려야 할 만큼 잠깐입니다 ㅇ.

이는 그 잠깐의 진통 속에서 드디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자들과 끝까지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ㅊ 새 차원의 생명이 생산되는 것이요, 인간에서 신령한 존재로 거듭난 그 생명이 그들의 주와 함께 지상에 출현하는 ㅋ 것이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동방에서 난 번개가 서방까지 번쩍이듯 ㅌ 동방에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어 서방으로 급속히 진행하시는 것이어서 성서에서 이들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ㅍ 말씀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들의 소문을 듣고 번민하여 ㅎ 결국 만국의 통치자들을 소집하고 ㅊ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생명들을 외계에서 적의를 가지고 침범하는 군대로 정의하고 이에 대항하여 최후의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는 ㅊ 것입니다.

ㄱ. 요7:7 ㄴ. 요16:8 ㄷ. 단7:21, 8:24 ㄹ. 계11:7 ㅁ. 계11:8 ㅂ. 사54:7~8 ㅅ. 마24:20 ㅇ. 사10:25, 17:14, 26:20 ㅈ. 계12:5 ㅊ. 고전15:40~49 ㅋ. 계14:1, 19:14~15 ㅌ. 마24:27 ㅍ. 계16:12 ㅎ. 단11:44 ㅊ. 계16:14 ㅊ. 단8:25 계17:8

현대 무기가 제아무리 발달하였더라도 하늘에 속하여서 이미 차원이 다른 존재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공격하면 할수록 도리어 세상에 속한 그들의 육체들만 희생될 뿐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여 군림하는 그 옛 뱀은 ㄱ 이같이 여자의 원수입니다 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옛 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가감하여서 ㄷ 현혹함으로써 하느님의 생기를 받은 혼의 생명을 죽인 자입니다.

사탄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몰아서 그리스도의 수족 같은 제자를 타락시켰으나 ㄹ 여자의 후손 ㄴ 중 으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와 같이 부활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들은 그 사탄의 발꿈치가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하고 ㅂ 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상대를 미워하여 해치고 죽이는 박해자가 아닙니다.

샬 때문에 ㅅ 일하는 자도 일꾼이요, 예수의 이름을 내세운 종교인이라도 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한 집단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어서 박해하는 일꾼과 박해를 받는 일꾼으로 나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상대를 미워하여 나뉘는 것이 아니나, 주의 가르침을 변질시켜서 퍼뜨리는 행위만큼은 용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ㅇ.

만국을 술에 취하게 만들었던 ㅈ 음녀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ㄷ. 그들은 하느님의 성도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녀가 타고 있었던 짐승이 도리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ㄷ 하셨습니다.

열 뿔 가진 짐승의 최후는 음녀의 치부를 만천하에 까발려 처참하게 처형하고 나서야 그 짐승도 멸망하는 ㅋ 것이요, 심판은 이렇게 자연히 벌어지는 현상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조화입니다.

ㄱ. 계20:2 ㄴ. 창3:15 ㄷ. 창3:1 ㄹ. 요13:18 ㅁ. 요2:4, 19:26 ㅂ. 창3:15 ㅅ. 요10:12 ㅇ. 계2:6, 20 ㅈ. 계17:2~7 ㅊ. 계17:16 ㅋ. 계17:8, 11, 19:19~21

이는 세상 만국이 만국을 취하게 한 종교인들의 가증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멸망하는 때에 비로소 음녀들이 참조하였던 증인들의 증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판명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전쟁에 능하신 모략의 신이십니다 ㄱ.

지음을 받은 인간이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내세우고 인간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며 그 인간의 가치를 높이 세워 놓고 신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조물주에 대항한단 말이요.

이스라엘이 본래는 다스리는 왕이 없이 하느님께 제사지내는 것으로 나라가 지탱하였던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ㄴ, 그 백성이 이방의 풍속을 좇아 그들 자신의 왕을 열망하였기 그들이 실상 하느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왕을 선택하여 주시어서 ㄷ 비로소 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명하시는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쳐서 ㄹ 임명하신 것이요.

사람을 판단하시고 이름을 주시며 사람을 지명하고 임명하시는 것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하느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의 지도자를 갖는 것이 어찌하여 하느님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하셨을까?

독생하신 하느님께서만이 인생을 참되게 지도하실 인생의 유일하신 상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수가 수십억이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누구든 유일한 자가 되도록 하느님께서 인생을 가치 있게 내셨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키운 짐승의 떼도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 위에서 사람의 머릿수를 손가락질하며 헤아릴 수 있답니까.

ㄱ.사11:2 미4:12 ㄴ.삼상8:7~18 ㄷ.삼상8:19~20 ㄹ.삼상9:16, 10:1, 16:13

하느님께서 기름 붓게 하셔서 유대의 왕이 된 다윗일지라도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려고 인구조사를 하였다가 그 일로 인하여 깊이 자책하고 하느님께 사죄하였음에도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ㄱ.

왕도 인간인 이상, 인생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길(道)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ㄴ 사도를 세웠듯이 ㄷ, 동방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며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결정하는 다수결의 방법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사를 물어 진로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상반된 길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무사들에게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네들의 몸뚱이 숫자에 달렸을 뿐입니다.

사람이면 의당히 따라야 할 말씀이니, 도의니, 진리니 하는 따위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헤아릴 수 있는 자기네 몸뚱이만이 필요합니다. 몸뚱이들이 모여 인간 만사를 단지 찬성과 반대로 양분하여서 몸뚱이 하나라도 많은 쪽이 되면 그것이 그들의 정의(正義)고 법입니다.

토대가 남을 치고 빼앗는 불의(不義) 위에 세워진 사회여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이와 저 사이의 공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오.

공의 대신 자기네 쪽에 유익하면 그것이 법으로 가결되어서, 본연의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동지가 아니면 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사가 내 이쪽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상대를 높이는 예의가 아니오. 목을 곧게 세우고 손 내밀어 서로 결탁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들의 기본입니다.

몸뚱이들의 결탁만이 그들이 사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를 죽이는 살생의 무력을 가졌기에 분쟁하면 서로 피해를 당하나 결탁은 남을 쳐서 분쇄하는 세력을 만들어 자기네를 살게 하는

ㄱ.삼하24:1~17 ㄴ.눅1:9 ㄷ.행1:26

신이어서 건장한 전사의 몸뚱이를 신상으로 만들어 세워 놓고 그 아래에서 단결을 위한 육신의 제전(祭典)을 거행하였습니다.

헬라의 이 같은 공동체도 결국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어 멸망하였으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 헬라의 전통을 계승하여 동방의 바사 제국을 쳐부수고 최초로 서방의 제국을 ㄱ 세웠습니다.

그 후 다시 헬라 무사의 후예가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을 가진 로마가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 헬라의 커다란 뿔이 되어서 못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위성 도시들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국의 역적으로 ㄴ 참조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근동과 중동을 넘어 더욱 깊숙한 극동으로부터 비단을 위시하여 자기, 엽차, 종이와 같은 문물이 상인을 통하여 수입되면서 재원이 고갈되던 중 근세에 이르러 대변화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옛 로마의 번영을 다시 일으키자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욕구가 과제가 되면서 과학기술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들어간 물품 중, 화약과 나침반의 응용은 해전으로 야망을 이루었던 옛 헬라의 정복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물품입니다.

로마제국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옛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체제가 다시 일어나 군주를 타파하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옛 그리스와 로마의 정복을 그대로 계승하여, 온 세계를 마구 침범하며 남의 영토를 식민지로 삼는 강국들이 솟아났습니다.

동방의 제국을 부순 숫염소에 난 그 큰 빨 대신 난 네 빨입니다.

사방을 향하여 솟아난 그 네 빨은 년, 월, 일, 시의 한순간에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일 무기를 비축한 맹수들입니다.

그 맹수들의 지배하에서 지금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짐승과 같은 종류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ㄱ.단8:5~7 ㄴ.요19:12 ㄷ.단7:3, 8:8 ㄹ.계7:1, 9:14~18

동방 해 돋는 곳으로부터 ㄱ 이 짐승에 항거하여 일어나는 신앙의 각성과 함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온역(瘟疫)과 지진들이 온 세상을 강타하는일이니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백마가 필두로 나오는 네 병마입니다.

백마는 천국의 복음을 과거와는 전연 달리 새것으로 다시 예언하는 왜침이오.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증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군이 할 사명이건만 그 복음이 온통 변질하였기 다시 하는 예언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은 증인들이 나와서 불과 삼 년 반 동안 ㄴ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므로 짐승은 그 신앙의 증인들을 반 국가 범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여 증인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데, 그 처형된 자들의 시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ㄷ 기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각 족속 중에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회개한 무수한 이들이 피신처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ㄸ 천이백육십 일 동안 하느님의 능력으로 양육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천이백육십 일의 삼년 반이 육신의 구원을 받는 고비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도 ㄹ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천삼백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ㄺ 예언하였습니다.

색출되어 처형되지 않고 남은 ㄻ 신앙의 일군들은 밀실에 숨어서 여전히 상제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ㄽ 등불을 밝히는 일을 계속하여 짐승과 대치하는 중, 시체가 살아서 승천하였던 것만큼 해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상제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오. 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니엘이 증언한 천이백구십 일과 천삼백삼십오 일 사이의 일입니다.

ㄱ.계7:1~3, 10:3, 11 ㄴ.속6:1~8 마24:7, 막13:8, 눅21:11 ㄷ.계6:1~8 ㄹ.계10:11 ㅁ.계11:3 ㅂ.계11:7~12 ㅅ.사26:20 마24:20 계12:6, 14 ㅆ.계12:14 ㅈ.단12:11~12 ㅊ.계11:13 ㅋ.12:17

해 돋는 동북의 땅 끝에 ㄱ 천자께서 해상에 출현하셨다는 소문으로 큰 소요가 일면서부터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지상에서 홀연히 증발되는가 하면 ㄴ 또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의 몸으로 홀연히 출현하는 초자연적 생명체가 부지기수로 출몰하는데 이들이 바로 저희 주께서 승천하셨던 몸 그대로 ㄷ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천자와 함께 지상에 출현하는 백마를 탄 군대입니다.

인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목숨을 바친 자들이 부활한 것이고 또 끝까지 하느님의 왕국을 증언하였던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ㅁ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천자와 함께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고 짐승은 그들에 대적하여 전쟁을 결의함으로써 천하의 모든 군대가 동원되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이억입니다 ㅂ.

하느님의 나라의 군대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군대 같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利)한 겹으로 만국을 치시는 그리스도의 신군(神軍)입니다.

입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적을 일으키는 조화의 도술을 가진 자를 그 짐승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들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늘에서 출현한 그 군대는 짐승이 장악한 만국의 지배체제를 전복하고 만국을 다스리시려고 오시는님과 그의 만군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가득히 말씀하신 『만군(萬軍)의 여호와』라고 하신 그 만군은 만주(萬主)의 의미도 되는 군대이고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나타난 번개가 서쪽까지 이르듯, 동방으로부터 서방으로 행군하여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만왕에게 그 짐승은 공격을 감행하여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공격용 살상무기를 터뜨립니다.

ㄱ.사24:16, 41:2, 25, 42:10 ㄴ.마24:40 눅17:34 ㄷ.마24:30, 26:64 막13:26 행1:11 계1:7 ㄹ.계19:14 ㅁ.고전15:51~52 ㅂ.계9:16 ㅅ.계19:15 ㅇ.롬15:12 계2:26, 19:15, 20:6 ㅈ.시24:10 사1:9 ㅊ.마24:17 눅17:24 ㅋ.계16:12 ㅋ.계9:15

그 무기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미치는 바람을 일으켜 땅과 바다에 해를 입히는 무기여서 그로부터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 삼분의 일이 한꺼번에 몰살하는 참화가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가 전멸합니다.

중국인들은 화약을 발명하고서 화약이 터질 때 악귀가 소멸한다는 전설이 있어서 두 용의 가면을 쓰고 서로 싸우거나 짐승의 가면을 쓰고 나와 싸우는 흉내를 내며 화약을 터뜨리는 의식을 벌입니다.

중국 문자로 화약이 불 화(火)에 병 고치는 약(藥) 자인 것은 화약이 본래 도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약을 만들 고자 했던 것이 거꾸로 살생의 도구로 이용될 줄 누가 알았으리오만, 관점에 따라 그것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병마를 소멸시켜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함으로써 육신의 구원을 얻은 집집이 장생하는 약의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웅녀에게서 단군을 생산한 환인의 아들을 환웅이라고 하였듯이 천자께서는 땅에서 승천하신 대웅(大雄)이십니다.

지성소(至聖所)에 있는 언약 궤와 제구(祭具)를 모두 황금으로 씌워서 거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천자께서 그 거룩하신 황금색의 황룡이신 반면, 그 황룡과 마주한 쪽은 붉은 용입니다.

아우를 쳐죽이고 노기를 발하여 얼굴을 붉혔던 가인이 지면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듯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는 솟염소도 분노한 힘으로 수양을 쳤다고 하셨습니다.

붉은 짐승의 몸을 이루는 네 야수는 그 솟염소의 네 빨입니다.

마지막 때 비상한 말로 만주의 주를 대적하며 형통할 이 세상 왕도 동북으로부터 난 소문으로 번민하다 결국 분노하여 나아가 동방으로부터 오는 무리를 모두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하고 맙니다.

ㄱ.계7:1, 3 ㄴ.계9:18 ㄷ.시35:8 사3:9 단2:45 슝4:6 ㄹ.계7:2 ㅁ.마3:12 눅3:17 ㅂ.마9:15, 25:6 눅5:34~35 계21:2 ㅅ.출25:10~40 ㅇ.민21:9 요3:13~15 ㅈ.계12:3 ㅊ.창4:5 ㅋ.단8:5~6 ㅋ.계17:3 ㅌ.단11:36 ㅎ.단11:44 ㅍ.계16:12 ㅑ.단11:45

온 천하를 미혹하여 군림하는 붉은 용의 모략보다 더 깊은 모략이 황룡에게 있어서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도리어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비로소 이 땅에 천 년이 차기까지 붉은 용의 미혹이 없는 황룡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여진 ㄹ 마지막 때가 되었기 포함되었던 계시의 인봉이
떼어져서 하느님 종들에게 전하신 비밀들이 이같이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위업을 찬양하는 자랑과 ㅂ 인간 자신의 위상과 기치를 치켜세우는 교만이 ㅅ 극도에 도달하여
참람(僭濫)한 말들을 합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성은 숭고하며 사람이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는 인민의 신성한 주권이라고
선전합니다.

인간 자신이 그토록 위대하고 숭고한 마당에 하느님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오.

인본주의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신앙에 역행하는 사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이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살상무기들이 터지는 바람을 하느님께서 불들고 계시어서 ㄴ, 그나
마 아직도 인류가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이 오며 급성 괴질이 유행하는 것으로 환난이 시작되고
하느님께서 불들고 계신 바람을 놓으시어서 땅과 바다가 해를 입으면 지상의 육체란 육체는 남김없이 멸절
하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점지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滅)하시기에 ㅅ, 전멸만은 모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늦은 비와 같이 내리는 때에 ㅈ 어린양의 피로 옷을 빨아 흰옷을 입지 못하고 ㅋ 때를 넘기면
회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앙으로 죽는 순간에도 하느님을 훼방하며 ㅌ 죽습니다.

ㄱ. 단11:24~25 ㄴ. 사11:2, 28~9 ㄴ미4:12 ㄷ. 계19:19~21 ㄹ. 계20:1~3 ㄴ. 단12:4

ㅂ. 사10:13~15, 13:11 ㅅ. 시10:4 사2:11~12 ㅇ. 계7:1 ㅈ. 마24:22 ㅊ. 골2:28~32 ㅋ. 계7:14 ㅌ. 계16:9, 11, 21

임하옵는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의 백성은 백의(白衣)의 백성입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면 죽습니다 ㄱ. 믿어져야 믿는 자가 되듯이 회개는 아무 때나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오. 성령이 임하시는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가 됩니다 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ㄷ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나누시는 때가 말세입니다 ㄹ.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다시 하는 증언을 마치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백성은 마흔두 달 동안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느님의 보우(保佑)를 받으나 ㄴ 그 바깥은 이방인이 짓밟을 그들의 관할입니다 ㅂ.

세상은 사람이 서로 사람의 권리를 내세워 싸우고 간통을 하며 심지어 남색 질 ㅅ 따위의 행위를 버젓이 ㅇ 행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자주가 미혹입니다. 자주 하여서 주체가 되어 인간의 힘으로 번영할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노예로
전락하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떠나고 지면을 떠나 유리하는 들짐승이 되어서 경쟁하고 투쟁하며 싸우는 삶은, 남을 물리쳐야 하
고 남에게 뒤지면 내 이쪽이 죽는 삶입니다. 한 마디로 남을 희생시켜야 사는 것이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
를 짓는 것으로써 사는 삶입니다. 생존을 위하여서는 집단에 예속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고 덩어리들 위에 더
큰 덩어리가 충충을 이루어서 밑바닥 인민은 똑같은 일을 일 년 열두 달 반복하는 부속 분자로 전락하여 편협
속에 갇힌 미물이 되고 속박 아래 속박으로 묶여서 의무만을 짊어진 삶이 됩니다.

본래 하느님의 성산에 하느님과 함께 거하던 인생은 땅에서 그보다 크고 높은 존재가 없는 영화로운 삶이었
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몸을 가려주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ㅅ.

인간이 그 같은 삶을 잃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인생이 태어난 지면에

ㄱ. 눅17:26~27 ㄴ. 롬8:26 ㄷ. 막13:20 3:12 계18:4, 21:3 ㄹ. 계7:13~17 ㄴ. 계12:6, 14 ㅂ. 계11:1~2 ㅅ. 유1:7 ㅇ. 사
3:9 ㅈ. 눅12:27

불어 산천초목 속에서 이 집, 저 집이 어우러져 떠나없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았던 삶은 하느님을 아주 떠난 삶은 아니었던 것이어서 감히 인간이 하느님을 부정하기까지는 못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무엇이든 싸움의 대상이 되는 투쟁의 사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 자연입니다. 그 자연은 도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신에 묻으면 털어야 하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그 반대로 인간이 지면을 떠나 도시화함으로써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산을 오염시키는 인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버가모를 사단의 위(位)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는 고대부터 도시로서의 역사를 가졌던 곳으로 여러 신전이 있고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그 주위를 지배하였던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곳입니다.

말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큰 성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삼아 집권층의 토대를 삼았던 이집트보다도 더 이전 상고 시절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데아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에 들어가 객 살이 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소돔은 말세의 자화상을 보는 거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들에 성을 쌓고 서로 동맹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상이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色)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도시입니다.

ㄱ.창4:14, 16 ㄴ.계2:13 ㄷ.계18:2 ㄹ.창19:9 ㅁ.눅17:28~30 ㅂ.베후2:6~8 ㅅ.창19:29 ㅇ.유1:7

인생이 어린양을 믿고 섬김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인생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서 그 영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음란에 빠지고 변질하여서 다른 색을 좇는 것입니다. 남색 질을 하는 이 망측한 현상은 헬라의 도시국가에서도 같은 현상이었고 로마의 지배계급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떠나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환경으로 바꾸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인공적인 것들이어서 정신마저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의 본 모습을 잃고 만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 이 소돔 성에 두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라고 극구 간청하여서 집으로 모시고 와 식탁을 베풀고 무교 병(無酵餅)을 구워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 백성은 그 손님에게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하려고 때로 몰려와 그 길손을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거리들이 그 길손에게 무슨 짓을 하여도 그 길손은 그 성에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약자입니다. 야수의 눈에 비친 약자여서 자기네의 동물적 욕구를 풀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 것입니다.

롯이 이곳에서 객 살림을 하면서도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롯 덕분에 이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음에도 그 성 백성은 그 길손뿐 아니라 그곳에 우거(寓居)하던 롯까지 멸시하는 주인의식 속에서 집단으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살면서 롯과 이 무리는 서로 반대 세상의 사람입니다. 길손을 대하는 호칭과 예절부터 다릅니다.

ㄱ.창19:1~2 ㄴ.창19:8 ㄷ.창14:14~16 ㄹ.창19:9

이 소돔의 백성이 얼마나 인간의 본래 모습에서 변질하였는지 그들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같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밭을 가지고 살았던 헷 족속은 소돔의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 땅에 우거(寓居) 하던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처의 뒷자리로 지목한 에브론의 밭을 거저 가지라고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굳이 그 밭을 샀던 것이고 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대가 모두 이 밭에 묻혔습니다.

지금의 선진국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울타리 안에 낫선 이가 나타나면 총부터 쏘는 세상이나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이 본 낫선 길손을 주라고 호칭하였듯이 ㄴ, 모든 이가 농사짓던 때에는 조선에서도 길손의 그 손에 님을 붙여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낫선 타관사람이 온 것을 보면 상전 모시듯 하였고 그것이 본래 인생의 마음인 인정이요 인심이었습니다.

롯이 보고 극구 접대한 그 길손이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는데 ㄷ, 롯에게는 그 손님이 생명을 구해준 하느님의 사자이나 소돔 백성에게는 그 반대로 저승사자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되던 때도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어떤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풀려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해졌을 때 이집트인의 집 문으로 손님이 찾아들어 집집이 급살 맞는 재앙을 겪어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 손님을 의아하게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ㄹ.

그 손님이 히브리 백성에게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내게 하신 하느님이나 이집트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집안으로 어둠을 타고 들어온 급살 병이었고, 롯이 무교 병을 구워 손님 대접을 하였듯이 이집트에서 구출되던 날은 무교 병을 먹는 명절이 되어서 지키는 날입니다 ㄹ.

ㄱ.창23:1~20 ㄴ.창18:2~3 19:1~2 24:18 ㄷ.히13:2 ㄹ.출12:23 ㅁ.출12:8, 18

과거엔 가장 무서웠던 것이 급성으로 전염하는 천연두였는데 조선에서 이 질병의 이름을 손님이라고도 불렀고 또 임금님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을 붙여 माम라고도 하였습니다.

치료법이 없어서 마을이나 집에 불청객의 병이 들어오면 오직 하늘에 운명을 맡겨야 하였기 때문이요.

이처럼 말세에 속수무책의 전란과 기근과 병겁이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느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 능력으로 이룩하는 항구적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선전하여서 지상에 만국을 다스리는 지배체제를 이루건만, 닥치는 재앙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여지없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가 상충하는 나라입니다 ㄱ.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상대가 바로 세상입니다 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권세는 어린양의 목숨을 빼앗았으나 어린양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속한 나라의 왕이요 주이시므로 ㄹ 부활하셨고 또 당신과 같이 처형된 ㄷ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ㅁ 때문입니다.

『저희(말세의 사역자들)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無底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ㄱ.사11:4 단2:34~35, 44, 7:14 요15:19, 18:36 계19:15
 ㄴ.요16:33
 ㄷ.마10:39계20:4
 ㄹ.계17:14
 ㅁ.요6:39
 ㅂ.계11:7~10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것이고 그 처형하는 곳이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의 도시입니다. 이는 그 종들이 증언하는 나라가 인본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신본(神本)이고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천상의 원군만이 주이시오. 하늘에서 이 땅에 도래하는 ㄱ 그 군주의 도성(都城)이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백성이 그 증인들을 오죽 미워하였으면 증인들이 죽자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축하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선물을 교환하리오.

증인들이 세상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건만, 사람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과 찬양에 중독되어서 그 증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ㄱ.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ㄴ 만군(萬軍)의 여호와이시오.
 ㄷ. 그 만군의 주께서 오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왕조를 세웠던 영웅들이 마상득천하(馬上得天下)라고 하여서 전쟁으로 나라를 얻었던 것인데, 그리스도 역시 말을 타고 천하를 짓밟아 그의 발아래 두십니다.

천자께서 백마를 타신 자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만국과 전쟁을 하시는 임이심을 가르쳐주셨고 그의 이름이 충신(忠信)과 진실이십니다.

천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드님에게 주셨건만 천자께서는 여전히 아버지께 충신과 진실뿐이어서 싸우시고 그 천자를 따르는 만군 또한 어린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ㄷ 따르는 백마를 탄 군대입니다.

주께서는 백마를 타고 입에서 나오는 이(利)한 겹으로 만국을 치시는 ㄷ 백마원수(白馬元帥)이십니다. 손에 잡은 무기로 상대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조화의 신력이 있어서 ㄷ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대결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천상의 원군이십니다.

ㄱ.마6:10 계21:2
 ㄴ.출15:3 시24:8
 ㄷ.계19:11~13
 ㄹ.계14:4
 ㅁ.계19:14
 ㅂ.계19:15
 ㅅ.사63:1~6 단2:34, 8:25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獨生)하신 어린양과 그 어린양을 따르는 만군이 하나가 된 ㄱ 하늘의 백마군대입니다.

죄인은 그 원군(元君) 앞에 서질 못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짓밟혀서 ㄴ 멸절하는 때입니다. 만국을 무너뜨리고 땅에서 세상을 친히 통치하실 자,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ㄷ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상제의 재림은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세상 나라를 치시는 재앙의 임금이시지만 ㄷ,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죽을 목숨을 구하시는 구원의 ㄷ 임금이십니다.

백마가 다른 색을 가진 재앙의 말들과 함께 말세에 온 세상을 횡행하여서 ㄷ 세상에는 재앙이 ㄷ 되나 하나님께는 도리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ㄷ 전마(戰馬)입니다.

어린양은 희생의 제물을 의미하나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ㄷ 전마입니다. 먼저 원군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고 ㄷ 그와 함께하는 그의 수많은 열매 또한 그들의 원수(元帥)를 따라 결국 이 세상을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자께서 생명을 죽이는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생의 몸이 되셨고 그 몸으로 재림 하셔서 당신을 따라 영생의 몸이 된 당신의 종들과 함께 만국의 세력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 오셨고 재림은 전쟁하시는 임으로 오시는 것이어서 오시는 천자에 앞서 나와 세상과 맞서서 천자를 다시 증언하는 종들의 활동을 또한 백마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처소가 아닌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어 말 구유에 뉘어 계실 때에 목자들의 예방을 받으셨던 임이시오.

ㄱ. 요17:21~23 ㄴ. 계19:15 ㄷ. 마21:9, 23:39 ㄹ. 계6:16 ㅁ. 사63:4 ㅂ. 속6:1~8 계6:1~8 ㅅ. 계11:6 ㅇ. 속6:8 ㅈ. 계6:2 ㅊ. 요16:33 ㅋ. 눅2:12

예루살렘 성에 임금으로서 입성을 나타내 보이셨던 때에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니 무리가 겹옷을 길에 펴서 깔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로 길에 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는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임하옵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노래하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시는 나 나라님의 행차를 영접하였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임금 그대로 겸손하신 임금이시오. 천진한 아이들과 백성이 동요로 그 임금을 찬송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왕조와 함께 사라진 풍속이나 과거엔 백성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군주나 원님의 행차를 배울 때 백성이 길에 겹옷을 깔아서 사모의 예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조선의 옛 선비들이 정감록의 예언을 믿고 만인이 죽는 환난에서 새 왕조를 여실 임금으로 정 도령을 고대하였는데, 나라 정(鄭)을 속언으로 당나귀 정이라고도 합니다.
유대교인은 물론 모슬렘까지 고대하는 메시아이시오. 중앙아시아를 넘어 극동까지도 민생이 갈망하여 오던 당래(當來) 불(佛)의 뜨인 돌, 미륵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오실 주(主)이십니다.
전달할 문자가 있기 전부터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무수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밑에 돌을 고여 반석을 띄워놓은 것들입니다. 이토록 산에서 뜨인 돌은 석가의 불도가 전하여 내려오기 이전부터 민생이 신앙하여 온 구세주(救世主)입니다.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니 이 반석을 믿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구세주이시나 그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는』 재앙의 심판주(審判主)입니다.

ㄱ. 마21:1~11 ㄴ. 시118:26 ㄷ. 속9:9 ㄹ. 단2:34, 45 마21:42~44 ㅁ. 마21:44

미륵을 당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當) 자는 당도(當到)할 때 쓰이는 당 자이고 올 내(來)입니다. 이 땅에 이미 왔다가 간 석가와 그의 제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땅에 장차 오실 서방정토(西方淨土)의 아미타(阿彌陀) 부처를 의미하는 것이오.
산에서 뜨인 돌이어서 만사여의(萬事如意)의 여의주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이적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석불(石佛)입니다.
앉아 계신 좌불(座佛)이 아니라 고인돌과 같이, 서 계신 입불(立佛) 아래 떠받치는 가마가 있어서 여의주를 들고 뜨여 계신 금산사의 미륵상과 같습니다.
금산사의 미륵은 손에 여의주를 들었으나 원군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신력으로 조화를 부리는 임이시어서 여의주를 입에 머금어 계신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인생을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가 많은 제자가 보는 중 산에서 뜨여 승천하신 임이시기, 이는 마치 제사할 때 떡을 하는 시루와도 같습니다.

보통 밥을 짓는 솥은 단층이어서 부뚜막에 앉히나 제사하고 음복할 떡이 나오면 시루는 들썩 뜨여 있는 솥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미륵에 신심을 가진 자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미륵에게 파는 풍속이 있듯이, 그는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신 임이십니다.

혈육의 자식이 아니라, 팔려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너도나도 그 뜨인 돌의 종자가 됨으로써 창세 이래 인생이 기구하여 오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조선의 백성이 서낭당이라고 이름 하여 부르면서 동산의 고개에서 소원을 빌며 너도 돌이 되고 나도 돌이 되어, 너도나도 자신의 돌을 띄워 한 우리의 돌무더기를 이루는 그 돌무더기의 나라를 고대하였습니다.

ㄱ.계1:4, 8 ㄴ.계1:16, 19:15 ㄷ.요6:58 ㄹ.계5:9 ㅁ.마23:9 ㅂ.단2:34~35

동산에서 뜨여 승천하신 어린양께서 하나님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어 이 땅에 당신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만군을 거느리고 오시니, 하늘에서 임하옵시는 주와 그를 따르는 만주(萬主)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래불의 처소를 도솔천(都率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이 땅에 하강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천지 창조의 근본을 일컬어 「반고(盤古)」라고 칭하였으며 이백(李白)조차 하늘의 상제를 대괴(大塊)라는 어휘로써 표현하였듯이, 반석은 성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하느님네 중에서도 구세주이신 독생하신 하느님의 대명사입니다.

성서에 모세를 가리켜 「그(모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라고 기술되었기, 유대교인들은 모세를 둘도 없는 목자로 받들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로서 쌍이 되어 그 백성을 인도하였고 아론은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었어도 모세는 그 아론에 비교하면 하나님과 같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가 백성에게 온전한 것을 가르쳤으면, 어찌하여 그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라는 말을 남겼겠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한 유일한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얼굴까지 뵈지 못하였습니다.

ㄱ.계3:14 ㄴ.신32:4 ㄷ.신32:15 ㄹ.신34:10~12 ㅁ.민12:1~9 ㅂ.신18:15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것은, 모세 앞을 지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가려주셨으면 그것으로 가려지는 것이건만, 어찌하여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시며 하느님 곁에 있는 반석을 굳이 보라고 하시며 그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모세는 가려져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잠깐 볼 수 있었으나 반석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면 모세는 그 반석보다도 못하고 더구나 잠깐이라도 모세는 그 반석 틈에 있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느님의 낫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을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반석이 모세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있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하시어 임이 계심시오. 인생이면 참으로 그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할 목자^ㄱ 비유하신 것입니다.

반석이 있어서 모세가 살게 되었듯이 히브리 백성이 허허벌판 광야에 기거하였어도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반석이 있어서 반석에서 한량없는 생수의^ㄴ 강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서는 더욱 기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먹고 마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생활을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ㄷ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바로 이 때문에 하느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벌을 그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셨습니다.

ㄱ.창32:30 출33:20 사6:5 ㄴ.출33:21~23 ㄷ.창3:21 ㄹ.요1:1 ㅁ.창49:24 신32:18 마2:6 ㅂ.렘2:13 슝14:8 요4:10, 7:38 ㅅ.민20:10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ㄱ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 반석은 하느님이 계시는 거룩한 반석입니다^ㄴ.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느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ㄷ 나머지, 지팡이를 잡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내지 않고 자기네를 주어로 삼아 자기의 노한 감정을 쏟으며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감히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인생이면 마땅히 믿어야 할 독생(獨生)하신 하느님의 상징인 것을^ㄹ 모세와 아론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선하신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그 진노를 모세는 자기가 아닌 백성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으로 아나^ㅁ, 이는 하느님의 말씀과 분명히 다릅니다^ㅂ.

모세와 아론을 히브리 백성에게 보내신 목적이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기 위함인데 그 목적을 모세와 아론이 이루지 못한 다고 하신 말씀이오. 이 엄청난 진노에 대하여 모세는 하느님께 여쭙어 보았으나 그 해답을 듣지 못 하였습니다^ㄷ.

하느님의 언약이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써는 하느님의 참모습이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내쫓기고 열국에 흩어져 살다가 그 열국에서 나올 때에나 비로소 하느님의 거룩함을 열국에 나타내고^ㄹ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ㅅ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ㅈ.

성서의 하느님은 유일하신 처음과 유일하신 나중의 그 하느님네들이 십니다.

ㄱ.민20:12 ㄴ.출17:6 ㄷ.출33:23 ㄹ.고전10:4 ㅁ.신1:37, 3:26 ㅂ.민27:14 신32:51 ㅅ.신3:26 ㅇ.겔20:41, 36:23 ㅈ.겔20:42 ㅊ.마23:39

히브리 원경의 첫 문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들의 그 복수명사 옆에 또다시 히브리의 첫 문자와 끝 문자로 표를 하여서까지 나타내어 주신 그 『처음과 마지막』 이신^ㄱ 양 상대의 임들이십니다.

처음만이고 높으신 임만의 그 하나이시면 상천 하지에 『오직 하느님만이 계시옵는』^ㄴ 그 온전하신 하느님이 아닙니다. 성서의 그 『우리』 의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도일 뿐이어서 실상은 온전하신 하느님을 쪽을 낸 형상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서만 계시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시어서 만유를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첫째 날에 탄생하신 빛이 일곱째 날이 되어 거룩하신 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은 사람의 머리 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땅에 있는 것이며 형상이 없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ㄷ,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ㄹ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영이시어서 형상이 없으시나, 살과 뼈를 가지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ㄹ.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 바라다보이는 호렙 산에 당도한 것이고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살 백성을 예언하여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향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궤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

ㄱ.사44:66, 48:12 ㄴ.신4:39 수2:11 ㄷ.요1:14 ㄹ.요14:1 ㄹ.요1서1:1

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주를*)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라고 ㄱ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도 힘들게 그 땅을 얻었건만 결국 그 땅에 세워질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그 재앙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느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요.

그 섬긴 것은 세상의 권력과 재력의 우두머리였던 로마 제국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느님은 단지 입술로만 믿었던 겉껍질의 형상일 뿐이었지, 실제로 사람이 의지하고 살았던 주가 아니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느님께서 기쁨 부으신 이스라엘의 선하신 임금을 버리고 그들을 죽이고 말로 로마 제국의 임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종교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종속하여 하느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그 주를, 거꾸로 자기네가 소유한 자기들만의 신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위하여 이용만 한 것입니다.

백성이 실제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법이고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단지 종교상의 유적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서로 다른 분야여서 하느님의 영역은 인간이 관여하는 일부분의 영역입니다. 회당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종교의 신은 인간이 정신방면의 유익을 위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예식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회의 한 분야이고 그 선을 넘어서 믿는 것은 미개인의 미신이고 위험한 광신입니다.

ㄱ.신29:21~26 *원경은 하느님이라는 단어여서 주라고 번역하여야 함. ㄴ.요19:15

하느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이 하느님께 종속하여 그 계명을 지키면 하느님께서 그 백성의 위상을 열국 중에 높여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고 배우게 하신 것이려만,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숭배하고 그에게 종속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임을 가르쳐주신 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임금인 그 제국의 모든 백성이 그 나라에 충성하며 살도록 자신의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 세워 떠받들게 하였고 하느님의 종들은 목숨을 바쳐 이에 굴복하지 않았기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말세에 온 천하의 패권을 잡는 세력과 그 군대가 거룩한 중앙에 미운 물건을 세워 세계 만민의 단결을 요구하고 이를 위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사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느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목숨을 걸고 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드디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 천하의 열국 중에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큰 날이 당도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있어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온 천하에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음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로서 나는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바벨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 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시니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ㄱ. 단3:1~27, 6:1~23 ㄴ. 계13:14 ㄷ. 계17:14 ㄹ. 계10:8~11 ㅁ. 계18:14

